

“활짝 핀 산수유꽃 보니 봄이로구나~”

구례 산수유꽃축제 막을라...주말 상춘객 문전성시 풍년기원제·체험 등 다채...광양매화축제도 '복작'

“노랗게 핀 산수유를 보고 있으니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지난 9일 오후 2시께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사랑공원은 '제25회 구례 산수유꽃 축제'를 즐기러 온 상춘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사진>
이날은 산수유꽃 축제 첫 날로 농악 공연, 풍년기원제, 봄날의 버스킹, 식전 공연, 개막공연(진시문·요요미 등) 등이 펼쳐졌다.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전통차 체험, 산수유 술 담그기, '환경이 놀자' 체험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이를 즐기러 온 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또 다른 방문객들은 행사장 중간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몸을 들쭉이거나 수수부꾸미, 식혜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먹으며 공연을 즐겼다. 이 가운데 음식을 담은 다화용기가 눈길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축제도 즐겁고 환경 보호도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호응했다.
축제장과 조금 떨어진 공원 전망대 인근에선 노란 산수유 나무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지나가는 이들에게 아이와 가족 사진을 부탁하는 이들도 있었다.
활짝 핀 노란 산수유꽃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봄이 오긴 왔구나”, “절경이 다”는 등의 감탄사를 내뱉었고 입가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연인과 함께 왔다는 김지훈(32)씨는 “여자친구가 봄맞이 꽃구경을 가자고 해서 산수유꽃 축제에 왔다”며 “봄이라고 하면 쌀쌀하지만 생각보다 더 꽃들이 만개해 봄이 오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온 김선혜(28·여)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수유꽃을 보러 구례를 찾았는데, 올해는 부모님과 함께 봄꽃을 즐길 수 있어 더 뿌듯하다”며 “노란 산수유꽃이 봄의 전령사처럼 느껴진다”고 미소 지었다.
구례 산수유꽃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봄꽃들이 하나둘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곳곳에서 봄꽃 축제들이 열린다.
앞선 지난 8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개막했으며 활짝 개화한 매화를 보러 온 상춘객들로 축제장이 북적였다.
목포시는 오는 30일 목포 유달산에서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이라는 주제로 봄꽃 토크 콘서트 등 각종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지산딸기’ 성공 출하 기원제 광주 북구지역 대표 특산물인 지산딸기의 성공적 출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오매! 지산딸기 한마당’ 행사가 지난 9일 용강동 집하장에서 열렸다. 이날 작목반 주민들이 클로렐라 농법으로 재배한 새콤달콤한 지산딸기 성공 출하 기원제를 올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조선대에 ‘은퇴자마을’ 생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동명대와 ‘시니어타운 추진’ 협약

조선대학교에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건강·의료 등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 기반 은퇴자마을이 들어선다.
은퇴자마을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주거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 들어설 경우 젊은세대와 시니어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내 최초로 교육과 거주는 물론 새로운 인생 3막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 추진을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동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UBRC는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등 10여 대학캠퍼스에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은퇴자 주거·교육시설로, 전통적인 시니어 주거단지 기능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접목한 ‘신개념 시니어 복합 케어 시스템’이다.
조선대는 동명대와 각 대학의 장점을 살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의



주인공인 재학생들의 성공을 돕고 은퇴자들의 인생 3막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국내 UBRC의 플랫폼 기능을 갖춰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새롭게 시니어타운 지원팀을 만들어 5년여간 이 사업을 준비한 한국UBRC위원회와 조선대의 UBRC 구축에 법률 등 종합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춘성 총장은 “2025년부터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한국 현실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시니어 지원 관련 시설 문제에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UBRC는 새로운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49 해질 18:37
🌙 달돋이 07:20 달진 19:44

| | | |
|-----|------|-------|
| 광주 | 구름많음 | 2/13 |
| 목포 | 구름많음 | 3/13 |
| 여수 | 비 | 4/12 |
| 나주 | 비 | -1/13 |
| 완도 | 비 | 4/13 |
| 구례 | 구름많음 | 0/13 |
| 강진 | 비 | 0/14 |
| 해남 | 비 | 1/14 |
| 장성 | 비 | -1/13 |
| 보성 | 구름많음 | -1/12 |
| 순천 | 구름많음 | 1/13 |
| 영광 | 비 | 1/13 |
| 진도 | 비 | 3/12 |
| 흑산도 | 비 | 5/12 |
| 고흥 | 비 | 1/14 |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 빨래 40 🚗 세차 40 🏃 운동 70

감기 조심하세요 실내 건조 좋아요 내부정돈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하

● 바다 날씨

| 위치 | 오전/파고(m) | 오후/파고(m) |
|-----------|----------|----------|
| 서해 앞바다 | 0.5-1.0 | 0.5-1.0 |
| 남해 앞바다(북) | 1.0-2.0 | 1.0-2.0 |
| 남해 앞바다(남) | 1.0-2.0 | 1.0-2.0 |
| 남해 앞바다(동) | 0.5-1.0 | 0.5-1.0 |
| 서부 앞바다(동) | 0.5-1.5 | 1.0-2.5 |
| 서부 앞바다(서) | 0.5-1.0 | 1.0-2.5 |

● 월때

| 지역 | 만조 | 간조 |
|----|-------|-------|
| 목포 | 02:40 | 08:01 |
| | 15:13 | 20:27 |
| 여수 | 10:01 | 03:22 |
| | 22:15 | 16:00 |
| 녹동 | 10:40 | 04:36 |
| | 22:53 | 17:07 |

● 전국 날씨

| 날짜 | 광주 | 서울 | 강릉 | 대구 | 제주 |
|-----------|----------|----------|----------|----------|-----------|
| 3월 12일(화) | ☁ (6/11) | ☁ (5/10) | ☁ (5/8) | ☁ (4/14) | ☁ (10/12) |
| 13일(수) | ☀ (3/14) | ☀ (2/11) | ☀ (0/14) | ☀ (2/15) | ☀ (7/13) |
| 14일(목) | ☀ (2/15) | ☀ (2/13) | ☀ (0/15) | ☀ (3/16) | ☁ (7/15) |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교육청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

내년 상반기까지...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 해결 기대

광주시교육청은 10일 “가칭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구축, 광산구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 상반기까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과 단위의 규모로 광산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센터 인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은 ▲광산교육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 ▲설립을 위한 TF 구축과 역할 ▲예산 확보와 자치법규 개정 계획 등 설립에 필요한 기본 뼈대를 담고 있다.

광산지역 교육 행정은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될 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광산교육청을 흡수·통합하면서 맡아왔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산교육지원센터 신설로 광산구 학생·학부모·주민이 가진 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산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문의 : 062)650-2099